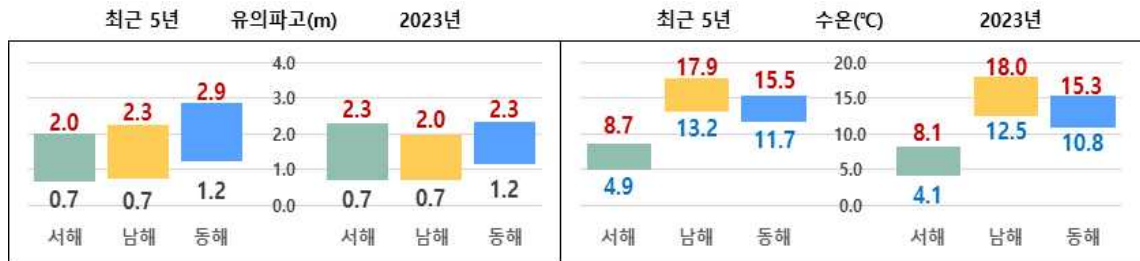


2023년 2월 해양 기상·기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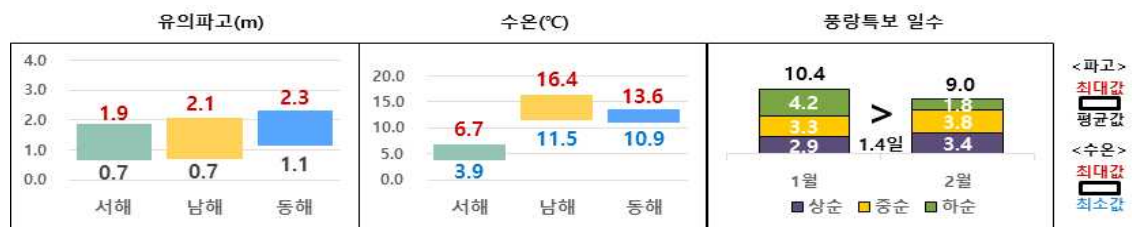
발표일: 2023년 1월 31일

해양 기상·기후

○ 1월 해양 기상 분석(최근 5년('18~'22년) 및 2023년)



○ 2월 해양 기상 특성(최근 5년('18~'22년))



○ '23년 2월 유의파고 및 수온 예측정보

- (유의파고) 동해상과 제주도해상은 대체로 약간 높겠고 특히 제주도해상은 상순과 중순에 높은 날도 있겠음. 서해남부해상과 남해서부해상은 상순과 중순에 약간 높은 날이 많겠으며 하순에는 대체로 낮겠음. 서해중부해상과 남해동부해상은 대체로 낮겠음
- (수온) 서해 6.0~10.0℃, 남해 10.0~17.0℃, 동해 9.0~13.0℃의 분포를 보이겠음

조석

○ 조석정보(고극조위, '23년 2월)

- 인천: 21일(919cm) / 완도: 21일(401cm) / 포항: 21일(19cm)

안전

○ 해양조난사고 현황(최근 5년간('18~'22년))

- 전체 18,701척 중 2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956척(5.1%)으로 연평균 191척의 사고가 발생

○ 해양사고 현황(최근 5년간('17~'21년))

- 2월 평균 146건 발생, 전복·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

어업

○ 2월 어황 전망

- 고등어, 전갱이, 멸치는 평년 수준 또는 평년 대비 증가, 갈치, 망치고등어는 평년 수준, 살오징어, 참조기는 평년 대비 감소로 전망

자료협조: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3년 3월 해양 기상·기후정보」는 2023년 2월 27일에 발표됩니다.

해양 기상 · 기후정보

■ 최근 5년간('18~'22년) 및 지난해('22년) 2월 유의파고(평균, 최고)



< 최근 5년간('18~'22년) 및 지난해('22년) 2월 순별 유의파고(평균, 최고) >

해역	면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외연도, 인천	덕적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맹골수도	신안, 진도, 영광, 군산,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불무도, 위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추자도(파고부이)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나로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오류도, 다대포, 사랑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울릉읍	연곡, 토성, 맹방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영락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최근 5년간('18~'22년) 2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전 해상	0.8m(상순 0.8m / 중순 0.9m / 하순 0.7m)로 전월(0.8m)과 비슷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6m (전월과 비슷)	1.1m (전월과 비슷)
남 해	0.4m (전월과 비슷)	1.1m (전월과 비슷)
동 해	0.9m (전월보다 0.1m 낮음)	1.4m (전월보다 0.1m 낮음)
제주도	0.9m (전월과 비슷)	1.5m (전월과 비슷)

<순별 평균 유의파고>

- (상순) 모든 먼바다와 동해중부앞바다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고, 모든 앞바다(동해중부앞바다 제외)에서 파고가 낮았음
- (중순) 모든 먼바다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고, 모든 앞바다에서 파고가 낮았음
- (하순) 모든 먼바다(서해먼바다 제외)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고, 모든 앞바다와 서해먼바다에서 파고가 낮았음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6	0.7	0.4	1.1	1.2	0.8
남 해	0.4	0.4	0.4	1.0	1.1	1.0
동 해	0.9	0.9	0.8	1.4	1.4	1.2
제주도	0.8	0.9	0.8	1.5	1.6	1.4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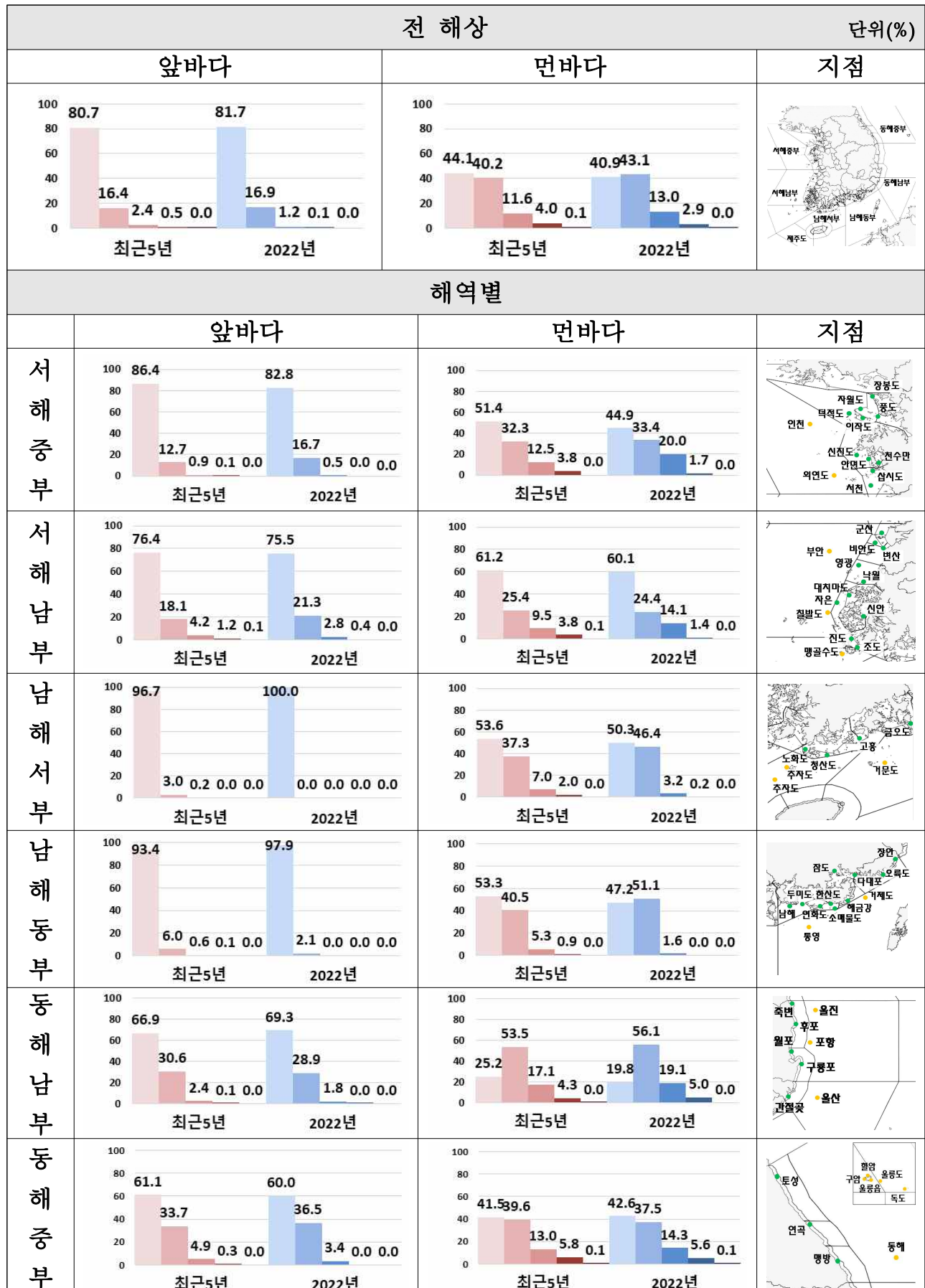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8~'22년) 2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 서 해: 앞바다 3.1m / 먼바다 3.2m
- 남 해: 앞바다 1.5m / 먼바다 2.8m
- 동 해: 앞바다 1.9m / 먼바다 3.8m
- 제주도: 앞바다 2.7m / 먼바다 3.4m

○ 관측 이래 2월 지점별 기상부이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칠발도	'05.2.1.	4.5 (5.5)	부안	'20.2.17.	4.5 (5.0)	칠발도	'97.2.16.	4.4 (5.7)
남 해	추자도	'21.2.27.	4.0 (5.4)	거제도	'10.2.11.	3.8 (5.0)	추자도	'20.2.17.	3.8 (4.7)
동 해	울릉도	'22.2.17.	4.6 (5.3)	울릉도	'13.2.8.	4.6 (5.1)	울릉도	'20.2.17.	4.5 (5.6)
제주도	서귀포	'21.2.27.	5.2 (6.1)	서귀포	'21.2.26.	4.5 (5.9)	마라도	'20.2.17.	4.4 (5.8)

■ 최근 5년간('18~'22년) 및 지난해('22년) 2월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간('18~'22년) 및 지난해('22년) 2월 전 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 (앞바다) 1m미만 80.7%, 2m이상 2.9%
(면바다) 1m미만 44.1%, 2m이상 15.7%
- 지난해 (앞바다) 1m미만 81.7%, 2m이상 1.3%
(면바다) 1m미만 40.9%, 2m이상 15.9%

○ 최근 5년간('18~'22년) 2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해: (앞바다) 1m미만 81.2%, 2m이상 3.3% (면바다) 1m미만 57.2%, 2m이상 14.6%
- 남해: (앞바다) 1m미만 94.5%, 2m이상 0.5% (면바다) 1m미만 53.5%, 2m이상 7.9%
- 동해: (앞바다) 1m미만 64.7%, 2m이상 3.5% (면바다) 1m미만 35.6%, 2m이상 19.8%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68.0%, 2m이상 6.0% (면바다) 1m미만 25.1%, 2m이상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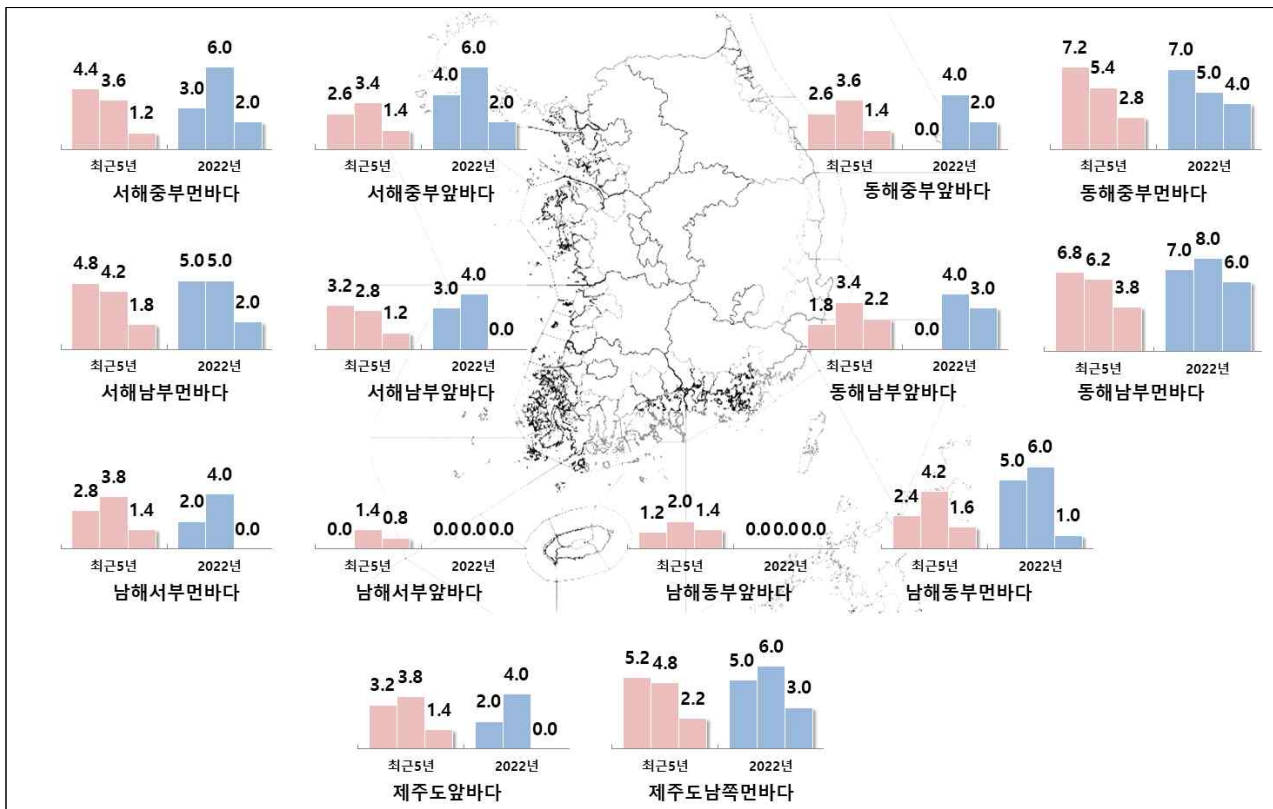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8~'22년) 2월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

- 최근 5년: (1m미만) 남해서부앞바다(96.7%) / (2.0m이상) 동해남부면바다(21.4%)
- 지난해: (1m미만) 남해서부앞바다(100.0%) / (2.0m이상) 동해남부면바다(24.1%)

해역	면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외연도, 인천	덕적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맹골수도	신안, 진도, 영광, 군산,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불무도, 위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추자도(파고부이)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나로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오륙도, 다대포, 사랑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울릉읍	연곡, 토성, 맹방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영락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최근 5년간('18~'22년) 및 지난해('22년) 2월 풍랑특보 일수



<최근 5년간('18~'22년) 및 '22년 2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2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5년: 9.0일, 전월(10.4일)보다 1.4일 적음
- 지난해: 9.3일, 전월(9.2일)보다 0.1일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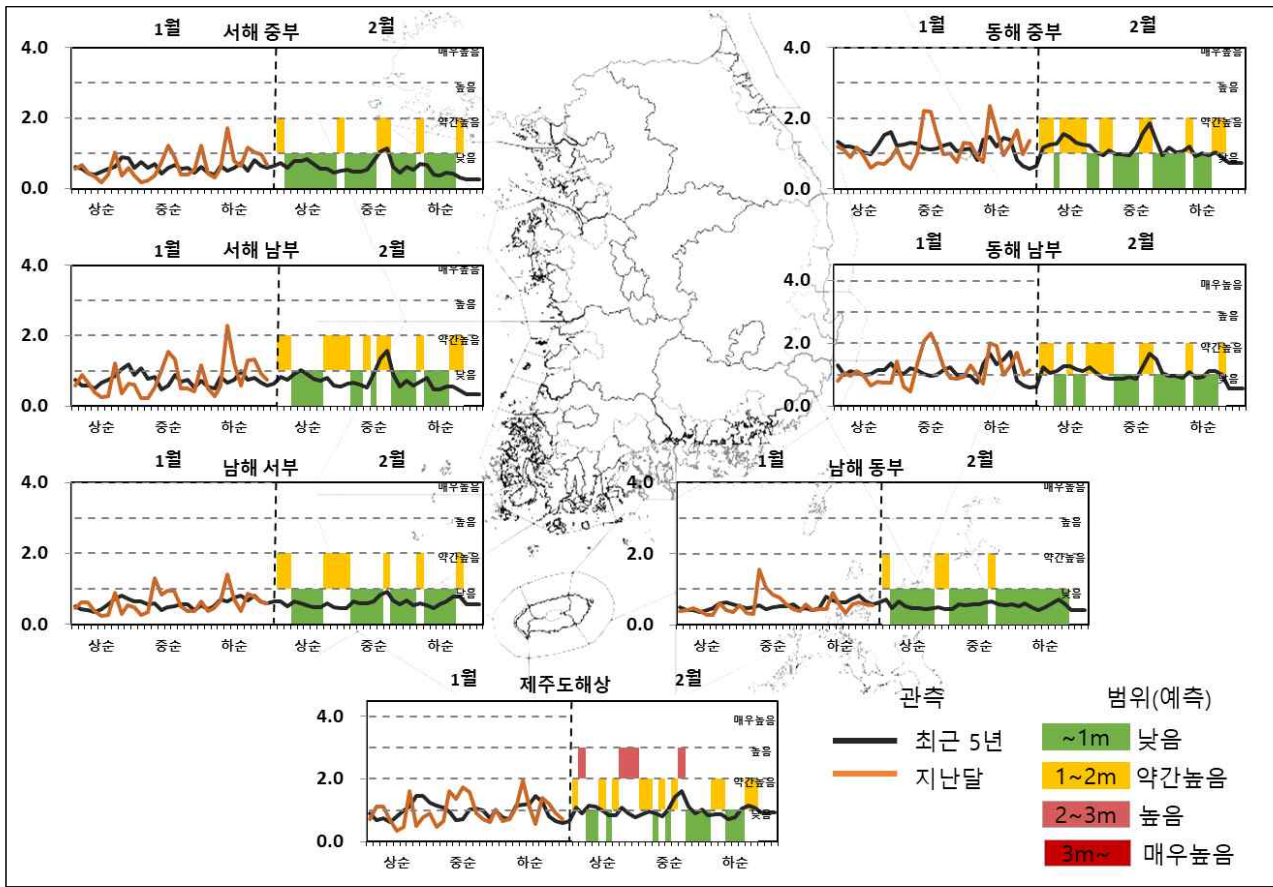
○ 2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 상순 3.4일 / 중순 3.8일 / 하순 1.8일
- 지난해: 상순 3.1일 / 중순 4.4일 / 하순 1.8일

○ 2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5년: 동해남부먼바다(16.8일) / 남해서부앞바다(2.2일)
- 지난해: 동해남부먼바다(21.0일) / 남해서부앞바다, 남해동부앞바다(0.0일)

■ 유의파고 최근 5년('18~'22년), 지난달(1월) 관측 및 2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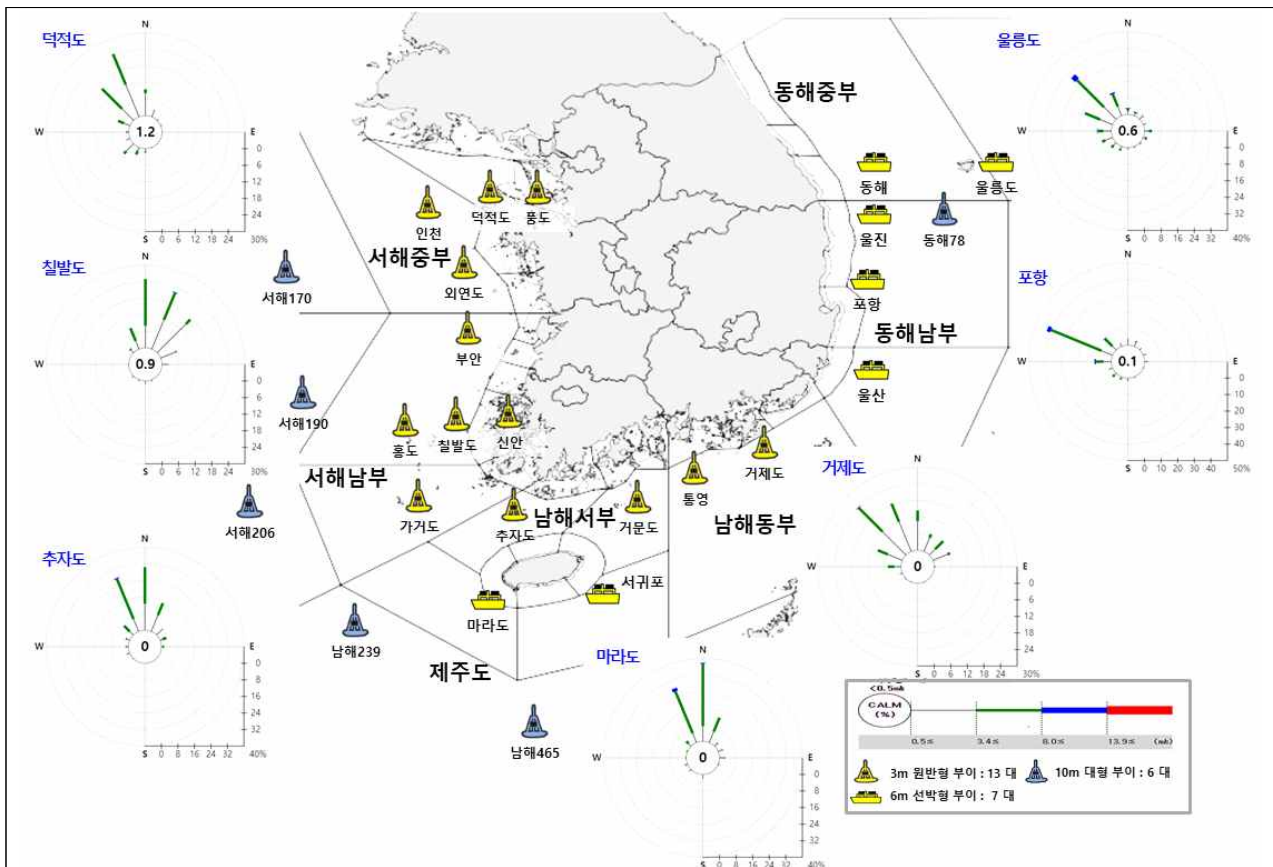
< 유의파고 최근 5년간('18~'22년) 및 '23년 1월(1.1~1.30.) 관측과 2월 예측 >

- ☞ 유의파고 관측은 해양기상부이와 파고부이에서 관측한 일 평균 유의파고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5년(—)은 '18~'22년 관측값의 일 평균, 지난달(—)은 '23년 1월(1일~30일) 관측값의 일 평균임
- ☞ 파고 예측은 수치모델에서 산출된 결과의 해역별 평균값으로, 구간값으로 표출함
※ 파고 구간값: **낮음**(1m 미만), **약간높음**(1~2m), **높음**(2~3m), **매우높음**(3m 이상)
- ☞ 파고 예측정보는 해역별 평균 예측값으로 예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외연도, 인천	덕적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맹골수도	신안, 진도, 영광, 군산,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부이), 추자도(파고부이)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오륙도, 다대포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연곡, 토성, 맹방
동해남부	혈암, 구암, 울릉읍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 지난해('22년)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 '22년 1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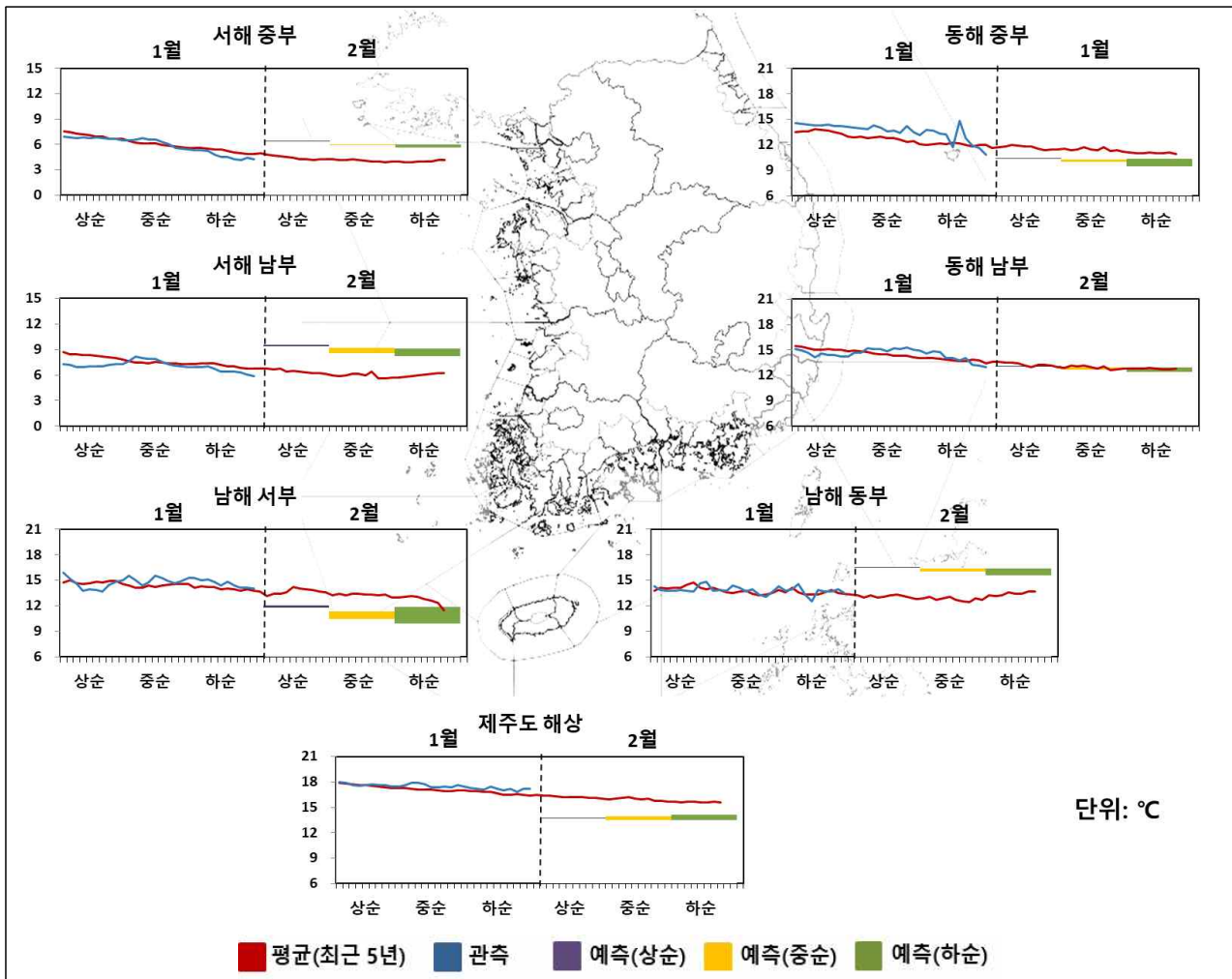
○ 지난해('22년) 2월, 각 해역의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3.3	3.4~7.9	8.0~13.8	13.9≤	
서해중부	NNW	1.0	23.4	41.3	33.9	0.5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170
서해남부	N	0.2	9.1	55.2	35.2	0.2	칠발도, 부안, 신안, 서해206, 가거도, 홍도, 서해190
남해서부	NNW	0.1	5.3	39.9	54.4	0.4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WNW	0.0	8.8	53.4	37.3	0.6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WNW	0.8	12.7	43.1	41.0	2.6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NW	0.2	14.3	43.7	40.0	1.8	울산, 울진, 포항
제주도남쪽	N	0.1	4.4	34.9	58.0	2.5	마라도, 서귀포, 남해239
전 해상		0.3	11.1	44.5	42.8	1.2	

- 주풍계: 전해상에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음
- 전 해상 풍속: 3.4m/s 미만 11.5% / 3.4 ~ 7.9m/s 44.5% / 8.0m/s 이상 44.1%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3.4m/s 미만 - 서해중부(24.3%) / 8.0m/s 이상 - 제주도(60.6%)

☞ 지난해('22년) 2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해상풍은 부록 1. 참고

■ 해수면 온도 최근 5년('18~'22년), 지난달(1월) 관측 및 2월 예측



< 해수면 온도 최근 5년('18~'22년) 및 '23년 1월(1.1.~1.30.) 관측과 2월 예측 >

- ☞ 해수면 온도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최근 5년)'은 최근 5년간('18~'22년 2월) 관측값의 평균, '관측'은 지난달('23년 1월)의 기상부이 관측값임
 - 관측지점: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칠발도, 부안)
 - 남해서부(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거제도, 통영), 제주도(마라도, 서귀포)
 -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울산, 울진)
- ☞ 해수면 온도 예측정보는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해역 평균 예측값을 사용하며, 실제 부이 지점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난달 ('23년 1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특성

해역	1월 해수면 온도(℃) (최근 5년 평균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6.5~6.9 (-0.3)	5.4~6.8 (0.2)	4.1~5.3 (-0.5)
서해남부	6.9~7.3 (-1.2)	7.0~8.1 (0.1)	5.8~7.0 (-0.5)
동해중부	14.0~14.6 (0.8)	13.2~14.3 (1.1)	10.8~14.8 (0.8)
동해남부	14.1~15.1 (-0.6)	14.7~15.3 (0.6)	13.0~14.8 (0.2)
남해서부	13.7~15.9 (-0.2)	14.4~15.6 (0.6)	14.0~15.2 (0.6)
남해동부	13.7~14.8 (-0.1)	13.1~14.4 (0.2)	12.5~14.6 (0.1)
제주도남쪽	17.5~18.0 (0.1)	17.3~17.9 (0.5)	16.8~17.5 (0.5)

○ 최근 5년간('18~'22년) 2월 해수면 온도 평균 및 '23년 2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예측

(과거) 최근 5년간 2월 해수면 온도 평균		(예측) '23년 2월 해수면 온도	
관측지점	범위(℃)	해역	범위(℃)
덕적도, 외연도, 인천	3.9 ~ 4.8	서해중부	6 ~ 7
칠발도, 부안	5.6 ~ 6.7	서해남부	8 ~ 10
울릉도, 동해	10.9 ~ 12	동해중부	9 ~ 11
포항, 울산, 울진	12.6 ~ 13.6	동해남부	12 ~ 13
거문도, 추자도	11.5 ~ 14.2	남해서부	10 ~ 13
거제도, 통영	12.4 ~ 13.7	남해동부	15 ~ 17
마라도, 서귀포	15.6 ~ 16.4	제주도남쪽	13 ~ 14

해양조석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 2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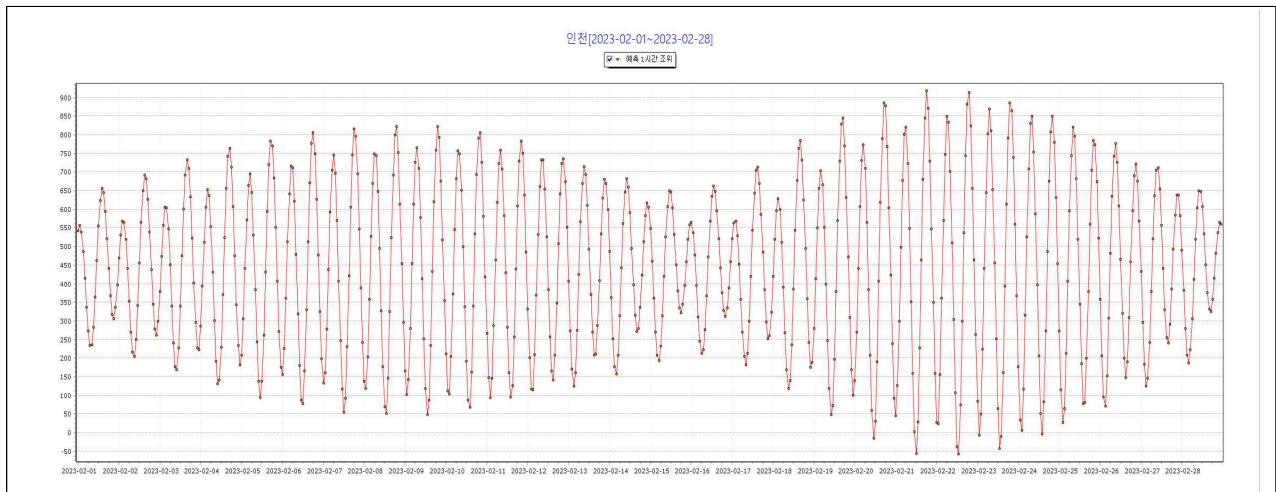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2월 21일에 919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2월 21일에 401cm, 동해안의 포항은 2월 21일에 19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2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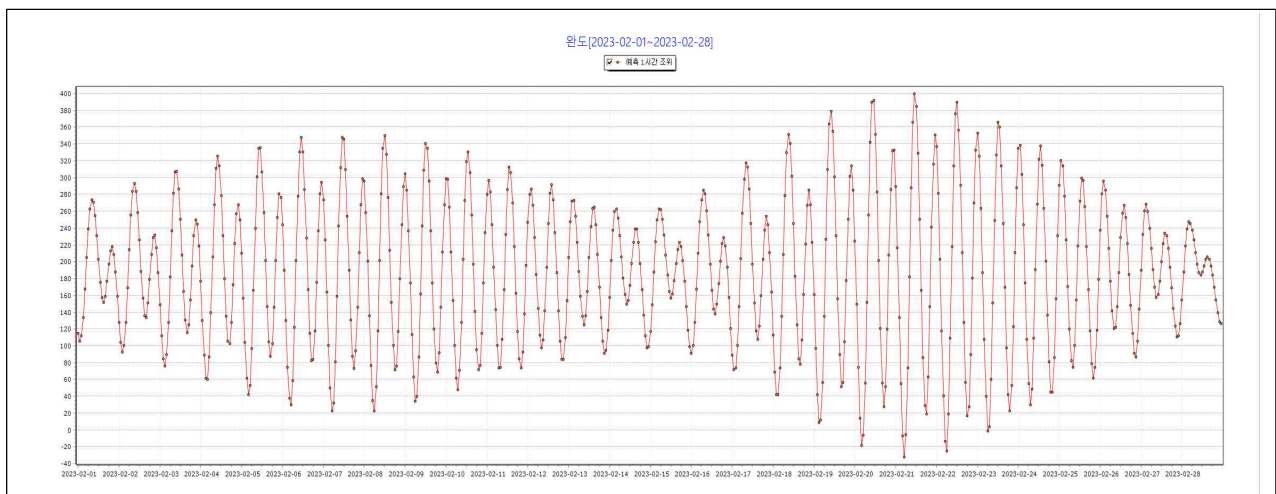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망, 2.6.~9.)		대조기(삭, 2.20.~23.)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서해안	인천	2.08. 18:44	827	2.21. 18:06	919
	안흥	2.08. 17:46	619	2.21. 17:04	686
	군산	2.08. 17:04	639	2.21. 16:20	709
	목포	2.07. 15:39	418	2.21. 15:25	482
남해안	제주	2.07. 12:04	250	2.21. 11:44	284
	완도	2.07. 11:26	352	2.21. 11:10	401
	마산	2.07. 10:06	176	2.21. 10:04	205
	부산	2.07. 09:38 2.08. 10:05	112	2.21. 09:28	126
동해안	포항	2.07. 03:38	16	2.21. 03:21	19
	속초	2.06. 02:53 2.07. 03:30 2.08. 04:06	26	2.20. 02:16 2.21. 03:07	30
	울릉도	2.06. 02:09 2.07. 02:53	14	2.20. 01:37 2.21. 02:34	14

☞ 2023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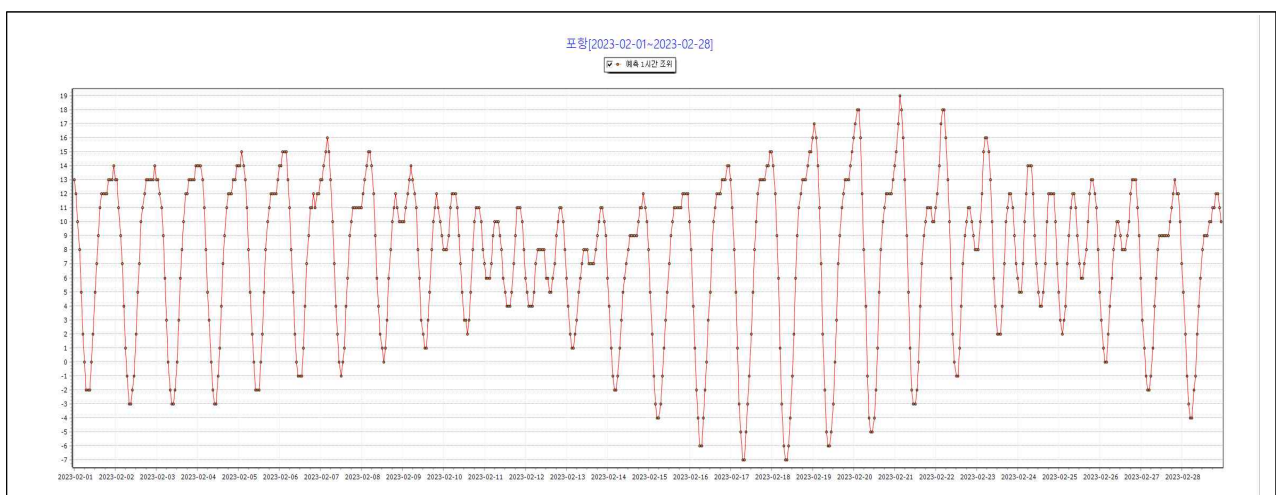
○ 2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3년 2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3년 2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3년 2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해상조난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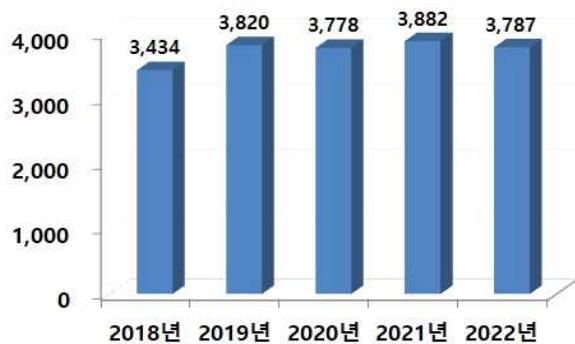
제공: 해양경찰청

○ 해상조난사고 통계(최근 5년 간, '18년 ~ '22년)

- 최근 5년간 18,701척(연평균 3,740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102,643명 중 374명(사망 254명, 실종 1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통계자료 : '23. 1. 10일 기준, <'22년 잠정>)

구 분	발 생		구 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 망	실 종
계	18,701	102,643	18,349	102,269	374	254	120
2022년	3,787	20,944	3,717	20,883	61	47	14
2021년	3,882	20,174	3,779	20,108	66	43	23
2020년	3,778	21,507	3,710	21,437	70	50	20
2019년	3,820	20,422	3,758	20,334	88	58	30
2018년	3,434	19,596	3,385	19,507	89	56	33
평 균	3,740	20,529	3,670	20,454	75	51	24



< 사고발생 현황 >



< 인명피해 현황 >

○ 해상조난사고 현황(2월)

- (총 괄)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 18,701척 중 2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956척(5.1%)으로 연 평균 191척의 사고가 발생
 - * 최근 5년간 2월에 발생한 인명피해(사망·실종자)는 39명
- (선종별) 어선 55.3%(529척) > 레저선박 13.2%(126척) > 예부선 8.4%(80척) 등 順으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를 제외하고 침수 9.4%(90척) > 충돌 7.3%(70척) > 좌초/좌주 5.9%(56척) 등 順으로 발생
 -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 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등
- (원인별) 사고 원인으로서는 정비불량 37%(353척) > 운항부주의 32.2%(308척) > 관리소홀 11.4%(109척) 등 順으로 발생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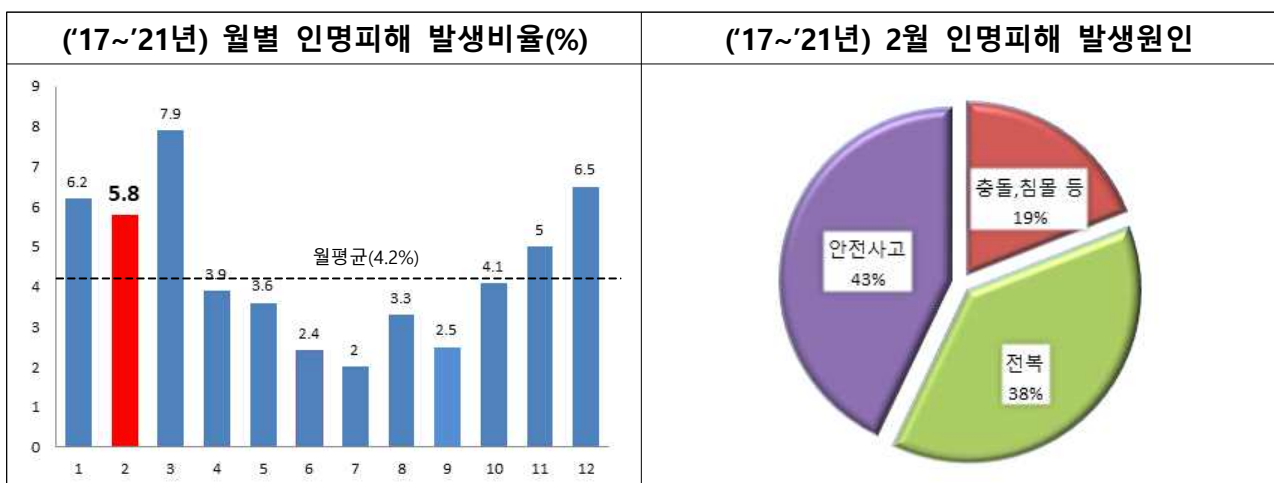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2월 평균 146건 발생, 전복·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93	146	182	201	230	246	257	264	323	314	250	214

-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는 총 728건. 주요사고는 충돌 58건, 안전사고 54건, 화재·폭발 37건, 전복 18건, 침몰 16건 등의 순으로 발생
- (선박종류별) 사고 선박은 총 815척. 어선 537척, 수상레저기구 88척, 화물선 42척, 예인선 41척, 유조선 26척, 여객선 12척 등의 순으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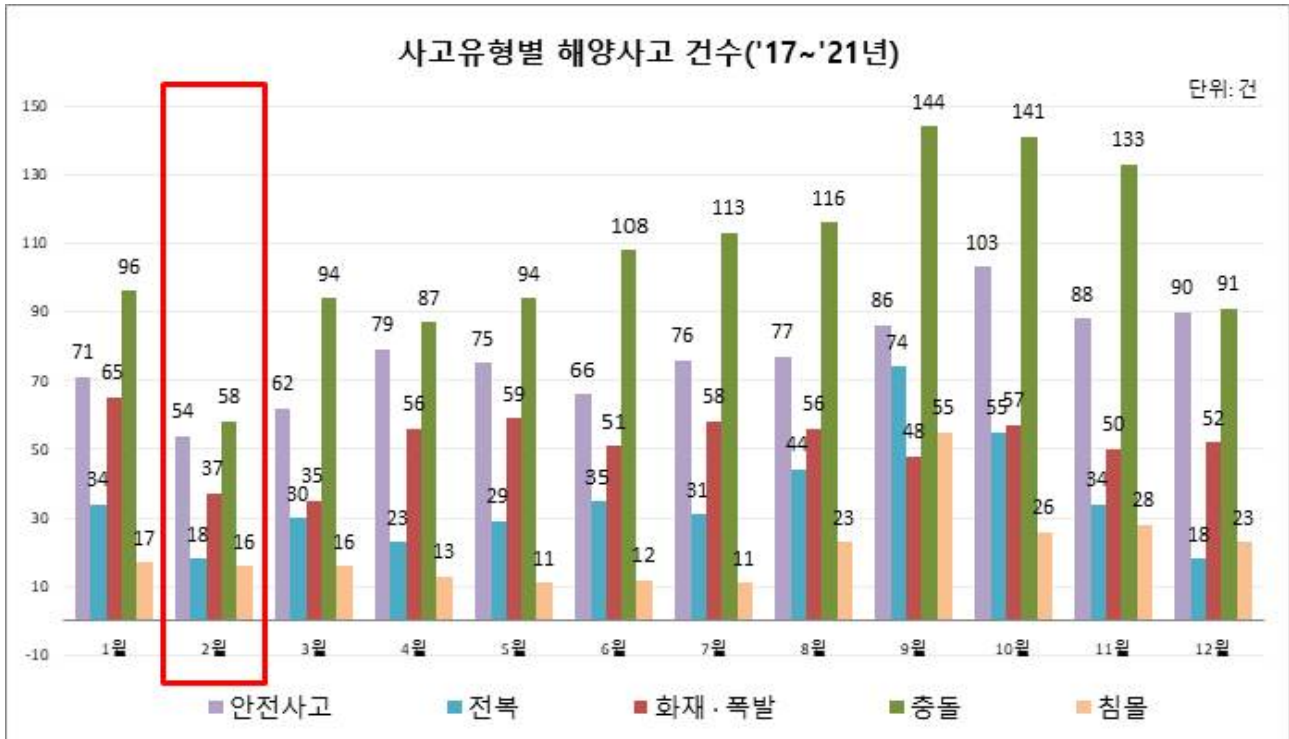
□ 2월에는 사고 발생건수는 적으나, 사고건수 대비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높은 시기로 인명피해 주요 요인인 전복·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

- (피해현황) 최근 5년간 2월 사고건수 대비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5.8%(42명)으로 월평균(4.2%) 대비 약 1.4배 높은 시기
- (피해원인) 부주의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18명, 42.9%) 및 높은 파도 등으로 인한 전복사고(16명, 38.1%)로 인해 대부분의 인명피해 발생
- (사고예방) 어구줄과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구 착용 등 선내 작업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상정보를 사전 확인하여 기상악화에 미리 대비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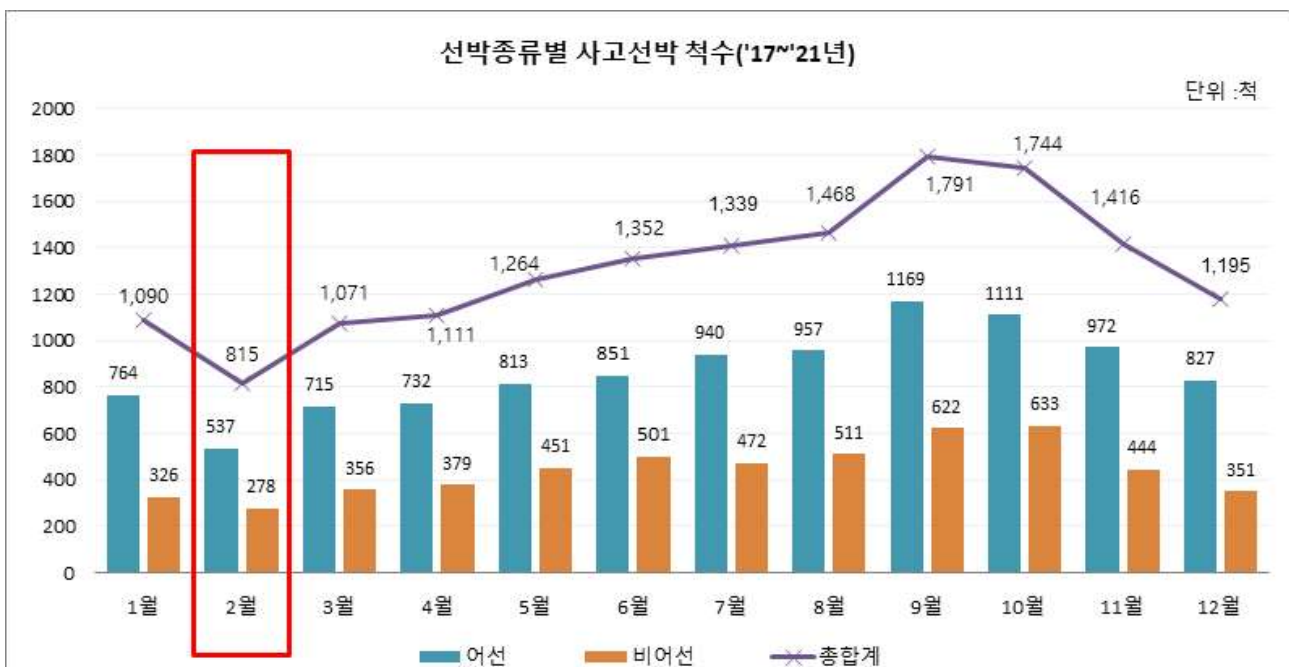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8~'22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현황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 2. 참고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물과학원

□ 2월 어황정보

○ 지난달(1월)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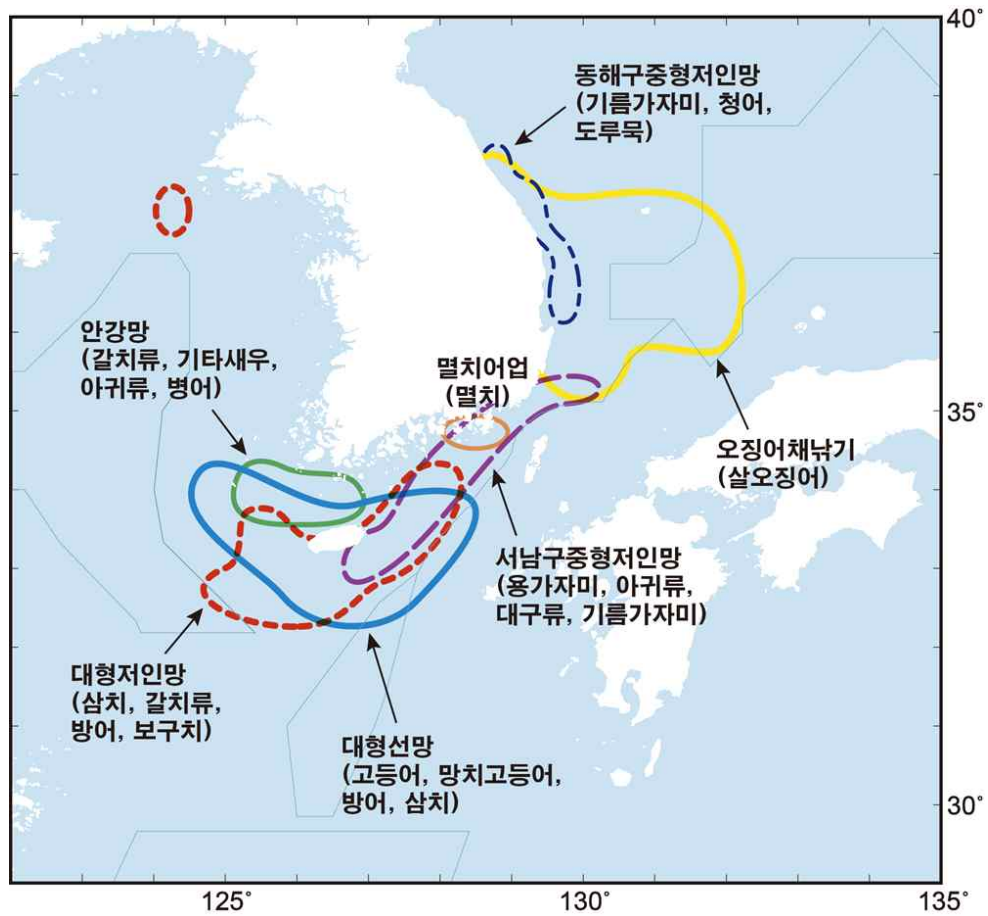
- 1월(기간: 11.20.~12.24.)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고등어, 전갱이는 평년대비 증가, 갈치, 멸치는 평년수준, 참조기, 살오징어는 평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2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망치고등어, 방어,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과 동해 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습니다. 최근 주 어종(고등어, 전갱이)의 어군밀도 증가로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의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오징어채낚기어업**: 남하회유중인 겨울산란군의 잔류군을 대상으로 동해 남부해역과 남해 동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자원밀도 감소와 어황부진에 따른 조업활동 축소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멸치권현망어업**: 우리나라 연안역에서 성장한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겠고, 최근 양호한 자원밀도와 조업활동 증가 영향으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 수준 또는 평년대비 증가로 전망됩니다.
-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은 주요 어종의 남하(월동)회유에 따라 제주 북서부 먼 바다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고, 갈치, 참조기, 아귀류, 병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원밀도는 전·평년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저인망어업**
 - **대형쌍끌이저인망어업**: 삼치, 고등어, 갈치, 방어 등을 대상으로 서해 남부와 제주도 남서부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습니다.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남부~남해 중부 근해에 걸쳐 보구치, 갑오징어류, 달고기류, 참돔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습니다.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제주 남부에서, 남해 및 동해 남부 해역에 걸쳐 대구, 용가자미, 눈볼대, 아귀류 등을 조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근해를 중심어장으로 기름가자미, 청어,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습니다.
 - 저인망어업의 전체 어황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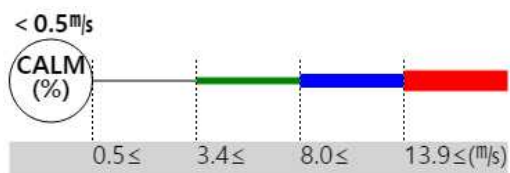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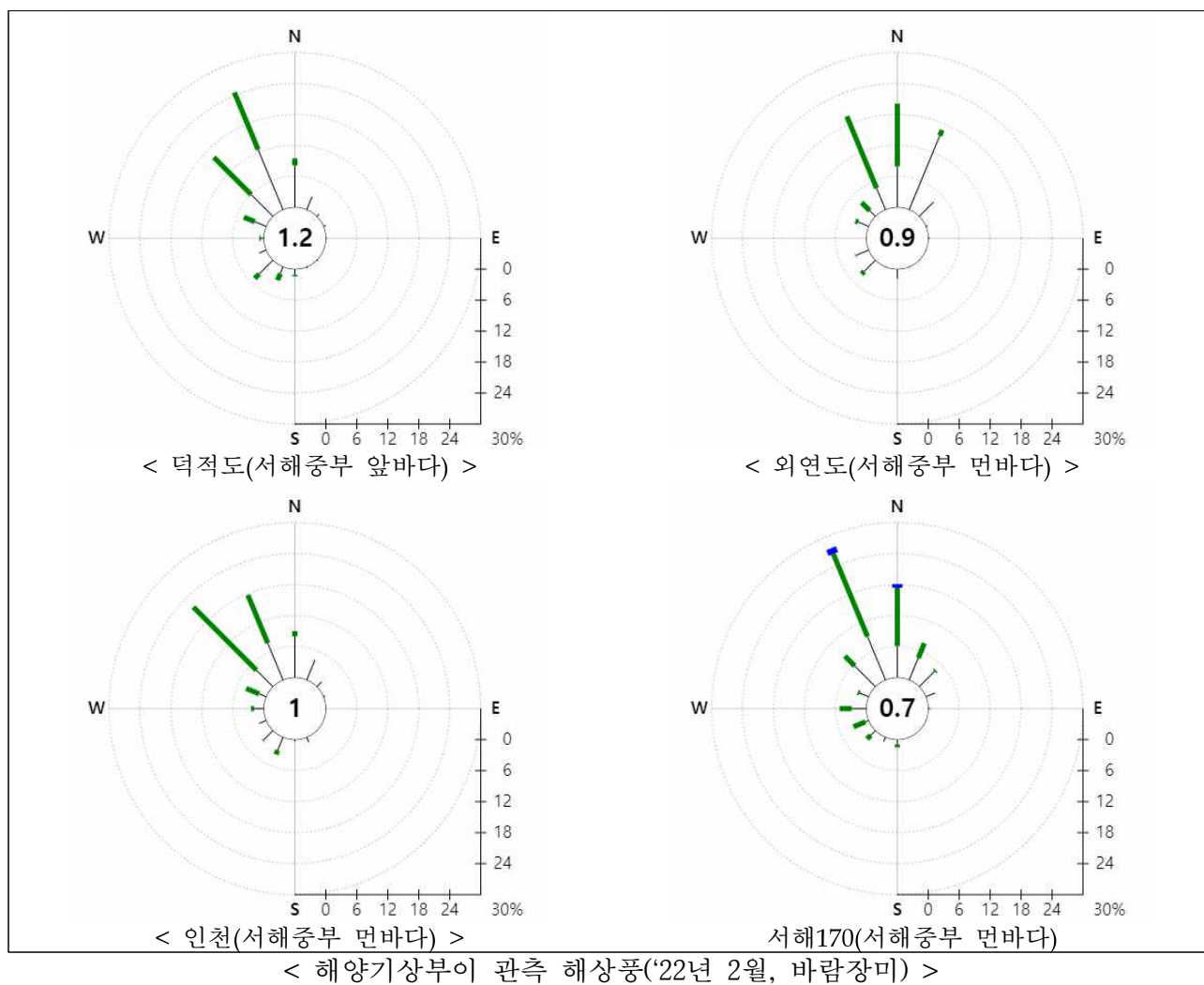
고 등 어	계절적인 수온 하강으로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주로 제주 주변해역과 동해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원밀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체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대비 증가로 예상됩니다.
전 갯 이	산란시기를 맞아 동중국해로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제주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어장에서의 어군밀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대비 증가로 전망됩니다.
살오징어	산란을 위해 동중국해로 남하하는 겨울산란군을 대상으로 동해 남부해역과 남해 동부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자원밀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황으로 전체 어황은 평년대비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멸 치	우리나라 연안역에서 성장한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 중부해역(남해도와 거제도 주변)을 중심으로 조업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자원밀도는 전·평년대비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대비 증가로 전망됩니다.
갈 치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어군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평년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 조 기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습니다. 주어기(9~12월)를 지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겠고,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어획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어황은 평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망치고등어	평년수준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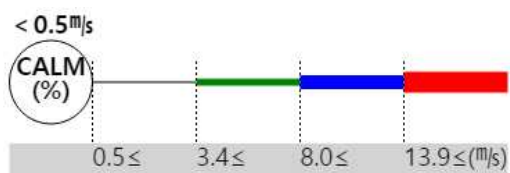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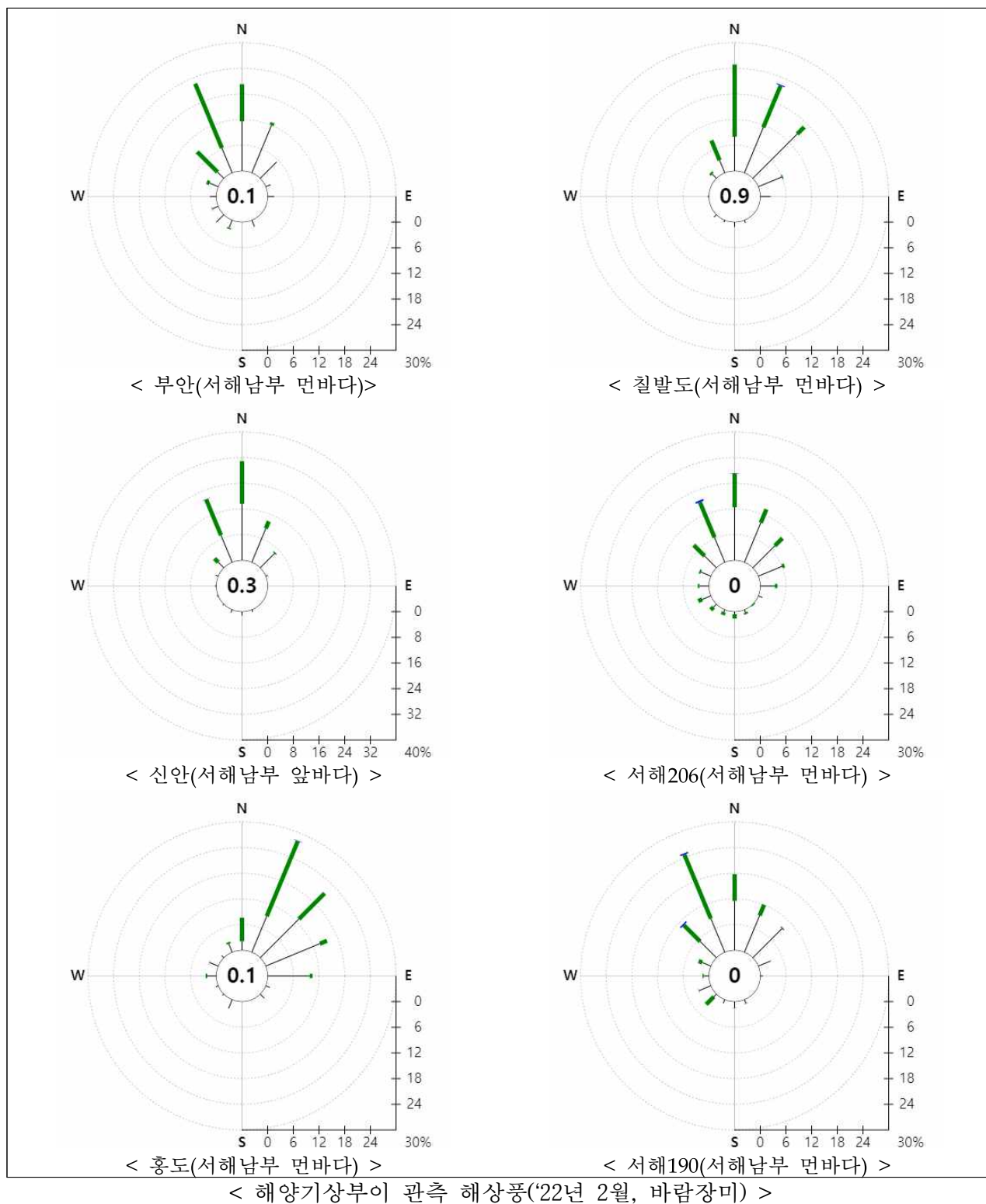
< 2023년 2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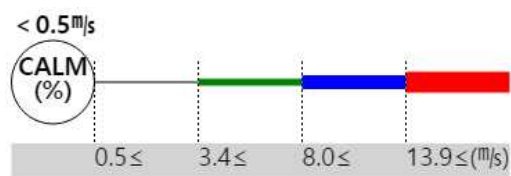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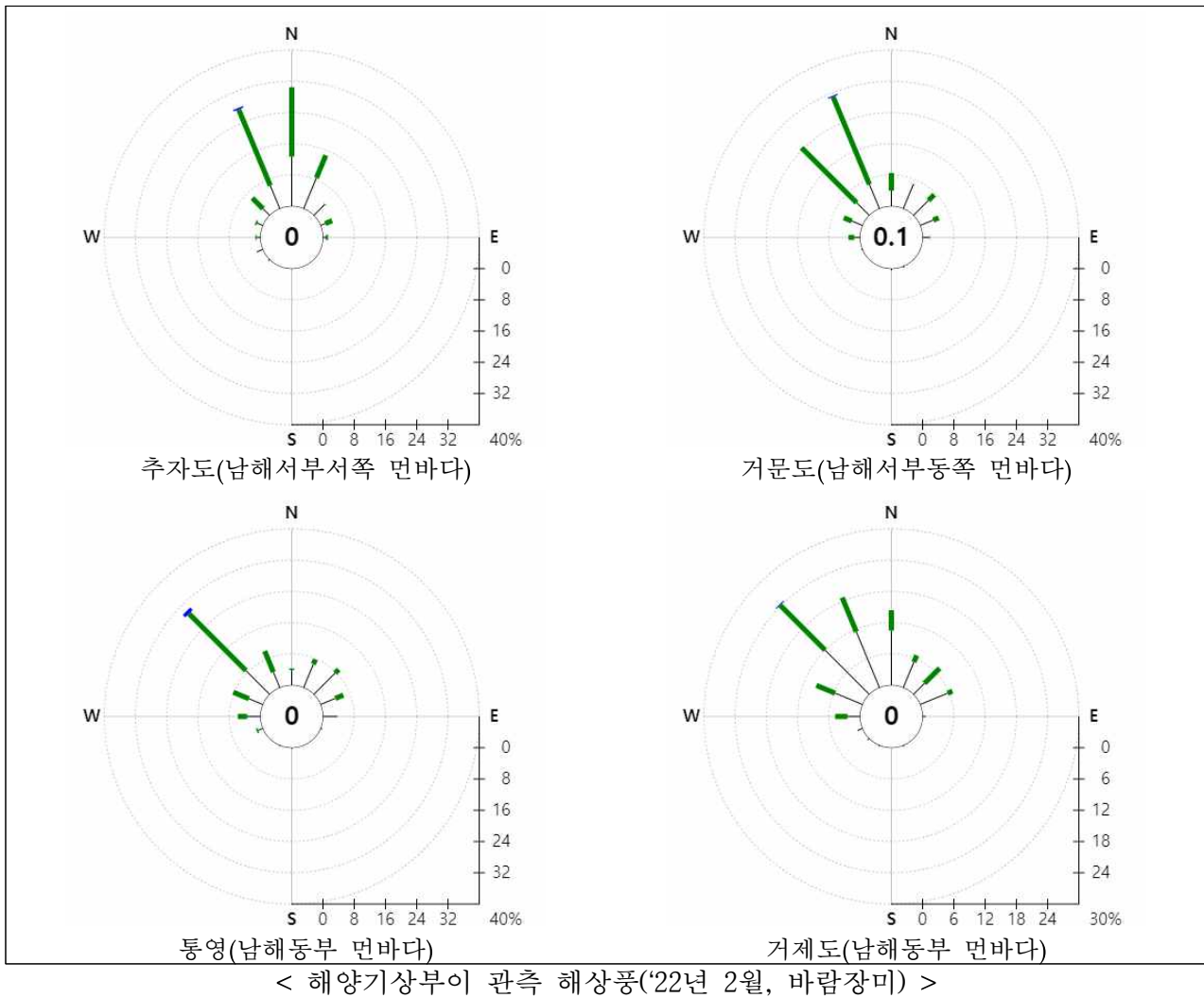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 중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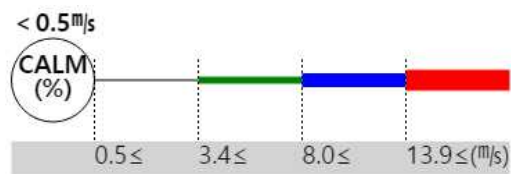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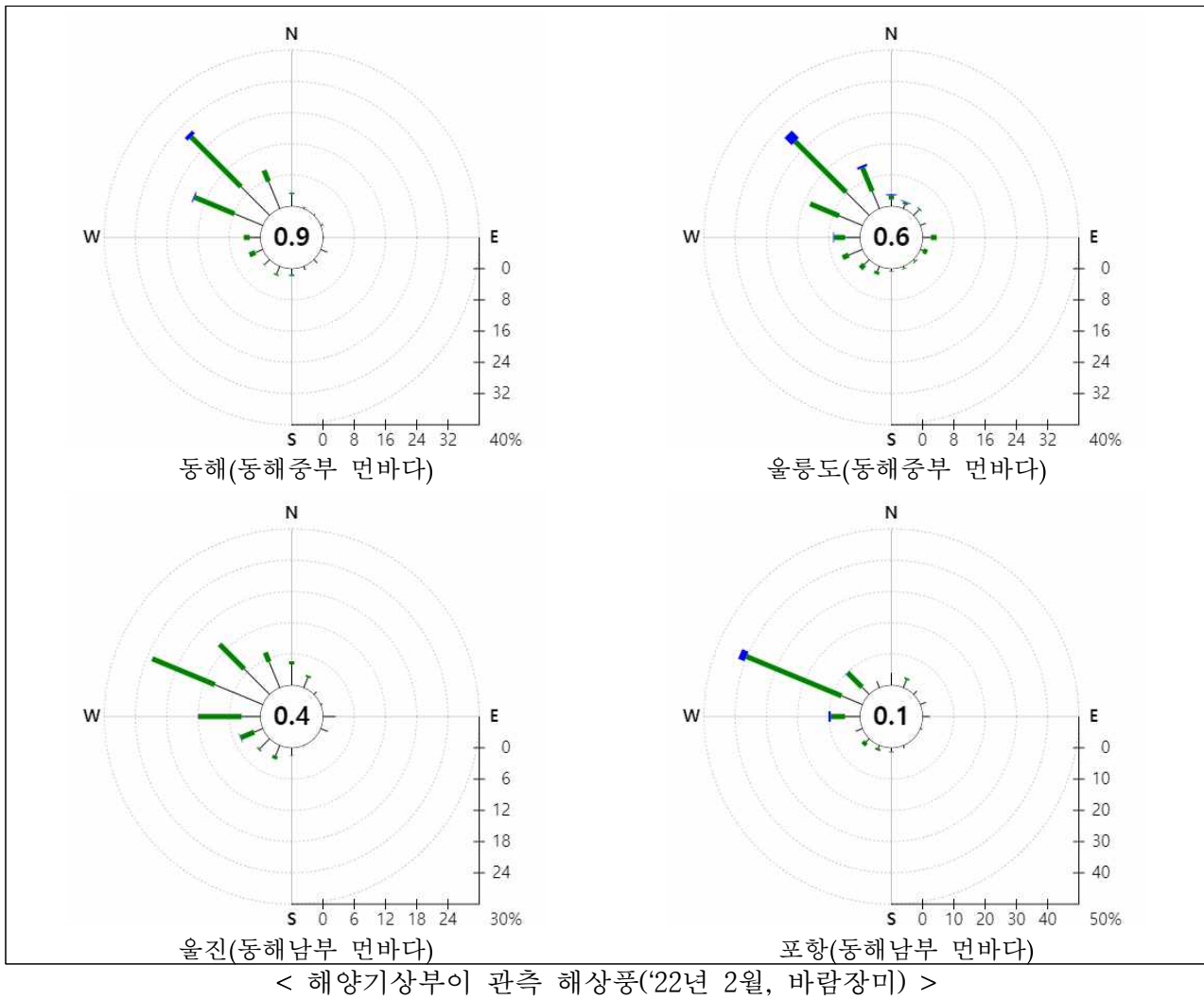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남부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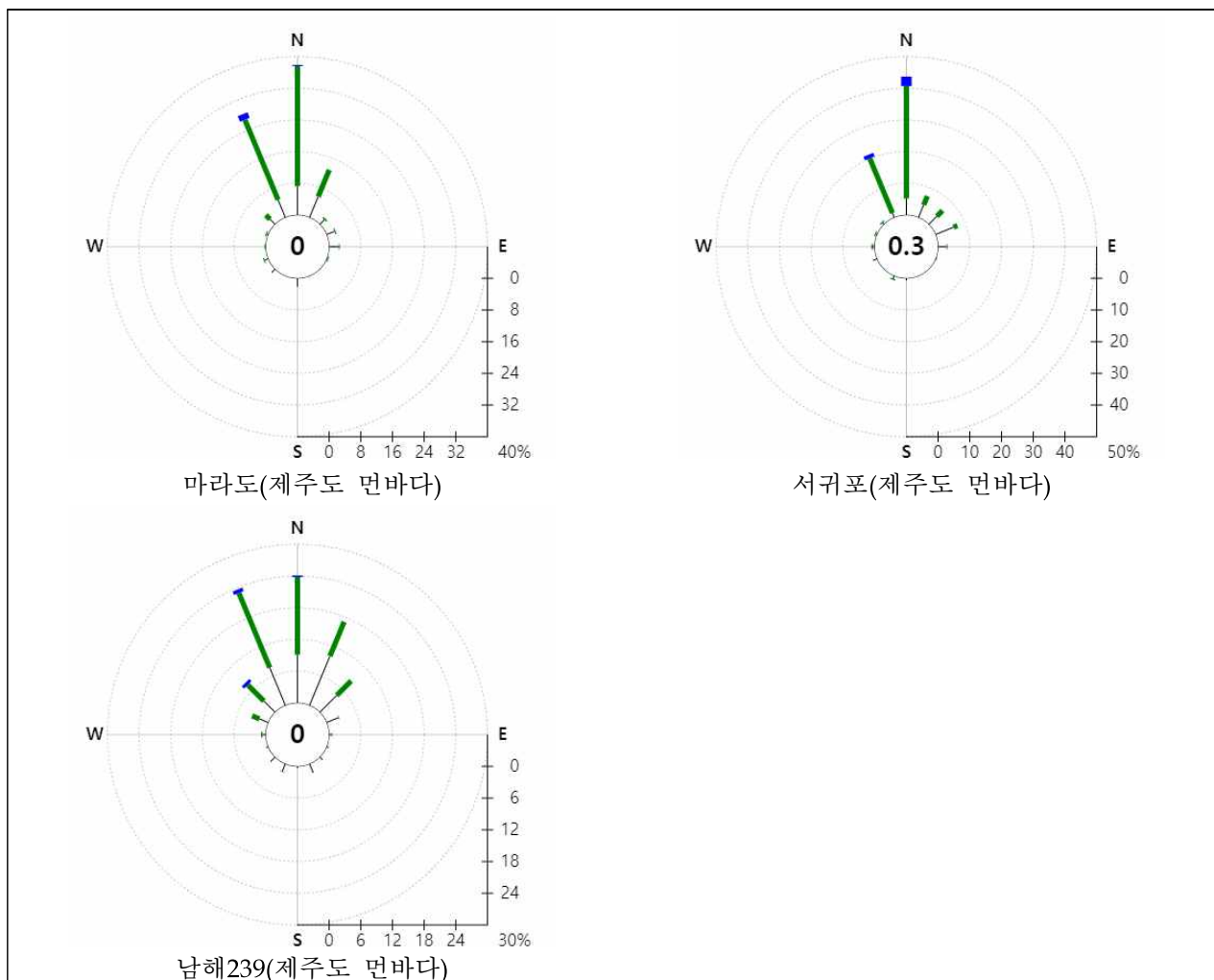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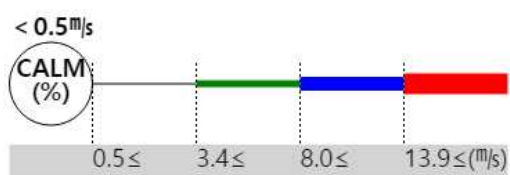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제주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2년 2월, 바람장미) >



【부록 2】

주요 해양 안전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어선 A호 선원사망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 어선, 68톤, 길이 31.02미터, 디젤기관 543킬로와트 1기
	일시	2021. 2. 2. 08:26경
	장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등대에서 방위 약 073도, 거리 약 273해리 해상
	피해	선원 1명 사망
	날씨	북서풍 초속 12~14m, 파고 약 3~4m, 시정 약 3마일
원인		홍게 통발 조업 중인 어선에서 좌현 측 불워크(난간) 상단으로 올라서서 통발을 투승하던 선원이 미끄러지면서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약 10분 후 다른 선원들이 이 사람을 구조하였으나 결국 사망함 통발 투승 중 선원이 부주의하게 불워크 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다 미끄러지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
교훈		○ 어선의 불워크 상단은 항상 파도로 인해 표면이 젖어 있어 올라설 경우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불워크 상단에 올라서서 작업하여서는 아니 됨 ○ 겨울철에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한 경우, 즉시 구조하지 아니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선장은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선장은 선외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행할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작업을 지시하여야 함

2. 어선 B호 전복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B호 : 어선, 29톤, 길이 21.59미터, 디젤기관 446킬로와트 1기
	일시 장소	2019. 2. 13. 05:35경 제주도 마라도등대로부터 176도 방향, 199마일 해상
	피해	B호 전복 후 침몰, 선원 1명 사망
	날씨	북동풍 초속 12~16m, 파고 약 3~4m, 시정 약 2마일
원인		갈치잡이를 위해 어구를 투승하는 작업 중인 어선이 갑자기 높은 파도를 맞아 다량의 해수가 갑판으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우현쪽으로 크게 기울게 되었고, 이후 기관실 내로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선체 경사가 증가하여 결국 전복됨 갑판 하부의 방수구가 막혀 있어 유입된 해수가 원활히 배수되지 못하였고, 기관실 출입문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아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었던 것이 선체 전복 원인임
교훈		○ 선박 소유자는 방수구의 막힘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비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선장은 유의파고 2배 높이의 최대파고를 조우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거친 해상 상태에서는 갑판상 개구부를 폐쇄하여야 함